

영어유모아의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황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모아는 익살과 웃음섞인 말로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는 특이한 매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유모아로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유모아는 현실과 생활의 진리를 반영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397페이지)

유모아는 익살과 가벼운 웃음이 섞인 말이나 언어유희적방법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어용적의미와 언어적의미를 충돌시켜 사업과 생활의 깊은 뜻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는 언어표현이다.

입말교체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생활에 생기와 랑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유모아를 잘 활용할줄 아는 능력은 모든 언어교체에서 아주 중시되고있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밝혀낸 영어유모아장르에는 경구, 수수께끼, 격언, 이야기, 희극, 겹침말, 야유, 풍자, 룡담, 유모아일화, 유모아소설, 삽화, 련상어, 모방어, 5련시 등이 있다.

영어유모아를 리해하자면 유모아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절정대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유모아의 일반적구조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영어유모아는 짧은 한줄짜리로부터 매우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형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각이한 형식과 길이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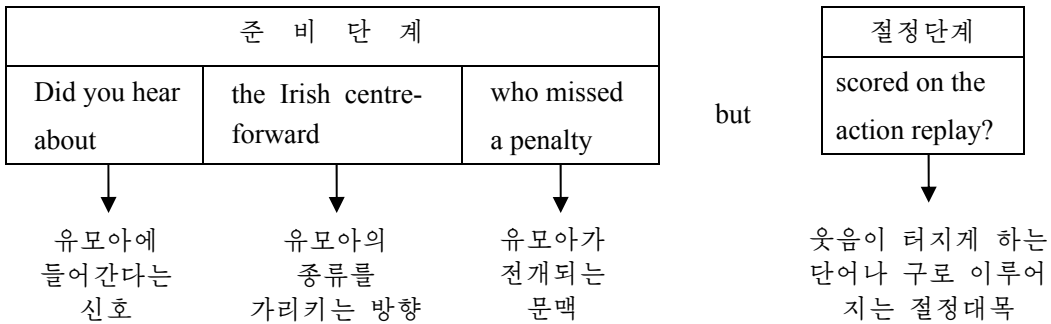
틀에 박힌 영어유모아는 대체로 2개의 기본단계(준비단계와 절정단계)와 4개의 구성요소들 즉 신호(signal)와 방향(orientation), 문맥(context), 절정대목(punchline)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사람이 《Did you hear about the Irish centre forward who missed a penalty but scored on the action replay?》(11m벌차기는 실수하였지만 다시 차넣어 득점하였다는 아일랜드중앙공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라고 말한데서 절정대목은 합성어 action replay이다. 합성어 action replay는 텔레비죤시대에 생겨난 술어로서 《재연》(repeat of the action recorded on TV film)을 의미하지만 아일랜드사람들은 《반복행동》(an actual repetition, a real second attempt)으로 리해한다.

이 유모아의 골자는 아일랜드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득점할 수 있다는 초현실적인 암시인것이다.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사람들이 사물을 피크윅(Pickwick: 디킨즈의 소설 주인공)식감각으로 보는것처럼 천진한데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영어유모아문장에서 절정대목이 놓여있는 위치를 유모아의 《절정단계》라고 본다면 필수적으로 유모아를 자아내기 위한 《준비단계》가 있게 된다. 이 《준비단계》는 하나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질수 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수 있다.



우의 표에는 유모아에 들어간다는 《신호》와 어떤 종류의 유모아인가를 시사하는 《방향》, 유모아의 배경인 《문맥》 등 유모아조성의 준비단계가 요소별로 공식화되어있다.

여기서 《신호》는 유모아의 불가분리적요소로서 여러가지 형식을 취한다. 즉 영국사람들속에서 늘 재미있는 이야기나 우스운 내용에 들어감을 시사한다는 서두문(《Did you hear the one about...?》) 또는 《There is this fellow...》이나 수수께끼임을 암시한다는 특수문의문(《There's a...?》, 《How do you...?》, 《Where do you...?》) 그리고 광고업자들이나 출판업자들이 즐겨하는 상투어적인 명령문(《Be X. Do Y》)이나 오래동안 쓰이면서 상투어가 된 인용문을 들수 있다.

영어유모아의 《방향》은 꼭 필수적인것이 아닐수도 있고 또 《문맥》과 일치될수도 있는 요소이다. 《방향》은 영어유모아의 주제류형 즉 아일랜드롱담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롱담, 접대원롱담, 꼬끼리롱담 등을 가리킨다.

영어유모아의 《문맥》은 유모아의 익살적인 내용을 산생시키는 조건이나 배경으로서 사건을 제한시켜준다. 영어유모아에서 이 《문맥》은 일반용법에서처럼 입말로 표현될수도 있고 또한 주어진 정황이나 일상생활관습상 언어외적수단에 의하여 감수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개된 문맥》과 《함축된 문맥》으로 구분해보는것이 편리하다.

영어유모아는 《준비단계》를 거쳐 《절정단계》에 이르러 발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모아라는것을 시사하는 신호 등을 분석한 다음에는 유모아덩어리를 폭발시키는 《절정대목》 즉 유모아를 이루는 선택된 언어수단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그 효과가 퍼져나가게 하는 중심적인 단어나 구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영어유모아의 이해에서는 언어학의 전통적인 어음론적, 어휘론적, 문장론적표현방식 등을 잘 아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먼저 영어유모아의 어음론적표현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영어유모아의 어음론적표현방식으로서는 말소리(글자)자리바꿈과 머리운 및 꼬리운맞추기수법, 음운수법 등을 들수 있다.

영어유모아의 어음론적표현방식에는 우선 말소리(글자)의 자리바꿈수법을 들수 있다.

말소리(글자)의 자리바꿈수법이란 언어요소들 즉 일반적으로 한 단어에서 말소리(글자)가 자리바꿈을 하여 유모아적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을 말한다.

례: You have deliverately tasted two worms and you can leave Oxford on the town drain.

우의 실례에서 발언자가 의도한것은 《You have deliverately wasted two terms and

you can leave Oxford on the down train.》(학생은 의식적으로 두 학기를 허송세월하였으니 내려가는 기차로 옥스포드를 떠나도 되오.)였지만 실지 어음론적으로 전달된것은 《학생은 의식적으로 지령이 두마리를 맛보았으니 시내배수로 옥스포드를 떠나도 되오.》로서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웃음을 자아내었다.

영어유모아의 어음론적표현방식에는 또한 머리운맞추기수법과 꼬리운맞추기수법이 있다.

머리운맞추기수법, 꼬리운맞추기수법은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며 문장의 뜻을 인상깊게 하기 위하여 같은 첫소리 또는 끝소리를 가진 단어를 배합한 표현수법의 하나로서 고대영어에서는 작시법의 중요한 수법으로 되어있었다.

동요에서는 머리운맞추기수법과 꼬리운맞추기수법 등으로 룰동을 보장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이 방법은 운문에서뿐만아니라 산문, 신문과 잡지의 제목 그리고 광고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리용되면서 유모아적색채를 더해주고있다.

머리운맞추기수법은 자음과 련속단어들의 시작에서 류사한 어음의 반복을 통하여 운률적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이다.

례: - 속담

Pudding rather than praise.

(칭찬을 받는것보다 푸딩을 받는게 낫다. → 꽃구경도 식후일)

No secret without sweat.

(땀을 흘리지 않고는 달콤한 맛을 알수 없다.)

- 신문기사의 제목과 광고제목

Channel Champion (해협건느기 우승자)

Wonder where the yellow went. (치약광고: 누런게 어디로 갔는지 신기하다.)

꼬리운맞추기수법은 단어들의 같거나 류사한 끝소리결합의 반복으로 문체론적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이다.

꼬리운맞추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규칙적인 거리에 위치한다. 운문에서 그것들은 보통 해당 시행의 끝에 위치한다.

례: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천재는 1%의 령감과 99%의 노력이다.)

Big thrills, small bills. (작은 비용으로 큰 재미를.)

다음으로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는 우선 단어오용법이 있다.

영어에서 거의 류사한 단어들을 서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실수를 멜러프로피즘이라고 한다.

멜러프로피즘이란 용어는 영국의 유명한 희극작가 셰리든의 작품 《적수들》(The Rivals, 1775)의 녀주인공 멜러프로프(Mrs Malaprop)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의 이름 《mal à propos》자체가 프랑스어로 《부적합한(inappropriate)》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의도된 단어대신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를 바꾸어넣는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멜러프로프는 머리에 든것이 없지만 유식해보이려고 애쓰면서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마구 사용한다. 실례로 그는 《닐강변의 기여다니는 악어처럼 고집이 센》

이라고 다른 녀인을 비난하는데 이때 alligator(악어)를 문학술어인 allegory(풍유)로 잘못 사용한다.

레: He is the very pineapple of politeness! (pinnacle)

(직역: 그는 레절의 파인애플이다.[최절정])

I have interceded another letter from the fellow! (intercepted)

(직역: 나는 친구한테서 또 다른 편지를 중재하였다. [가로 쳤다])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는 또한 단어형태조성법이 있다.

영국어린이들속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언어유희는 한 아이가 《What's a baby pig called?》(애기돼지를 뭐라고 부르나?)라고 물으면 다른 아이가 《Piglet.》(새끼돼지.)라고 대답하는것이다. 《So, what's a baby toy called?》(그러면 애기장난감은 뭐라고 부르나?)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Toilet.》(위생실.)라고 말한다.

우의 실례에서 언어접수자는 의식적으로 거짓영어단어형태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유모아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다른 흥미있는 거짓영어형태의 실례는 seagoon(바다얼간이)의 전형적대화토막에서 볼수 있다.

Seagoon: A penguin please.

Sellers: Certainly, I'll look in the catalogue.

Seagoon: But I don't want a cat, I want a penguin!

Sellers: Then I'll look in the penguin-logue.

(바다얼간이: 펭귄 한마리를 주시오.

판매원: 그러지요. 목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다얼간이: 아니 난 고양이를 요구하지 않소. 펭귄을 요구하오.

판매원: 그럼 펭귄목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얼간이는 《catalogue》(목록)를 《cat + logue》(고양이목록)로 헛갈리다 나니 《펭귄목록》을 사전에도 없는 《penguin-logue》로 만들어 웃음을 자아낸다.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는 또한 겹침법이 있다.

겹침법은 한 단어나 단어결합이 문맥에서 두개의 의미를 실현하거나 한 단어가 류사한 발음이나 철자를 가진 단어를 편상시키는 표현수법이다.

겹침법은 특히 말을 가지고 재간을 피우는 수법이기때문에 해학적인 효과가 강한것으로 하여 영어유모아형성에 널리 이용된다.

겹침법은 첫째로, 한 단어나 단어결합의 기본의미와 파생의미가 문맥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을 동형이의어적겹침법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말소리가 같은 단어의 서로 다른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교차되면서 유모아적효과를 자아내게 한다.

레: - Where do fish learn to swim?

(물고기는 어디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가?)

- In a school. (학교/물고기떼에서.)

우의 실례에서는 《학교》라는 school의 의미가 철자와 발음이 똑같은 다른 school의 의미(물고기떼)로 교차되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겹침법은 둘째로, 철자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단어 또는 단어결합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을 동음이의어적겹침법이라고 한다.

동음이의어들은 같은 발음으로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현시켜 유모아를 조성할수 있다.

례: When does the baker follow his trade?

— Whenever he needs (kneads).

— Whenever he needs (kneads) the dough.

우의 실례에서 《빵집에서는 언제 영업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첫번째 대답에서는 동음이의어 needs와 kneads의 서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실현시켜 《필요한(반죽할) 때》로 웃음을 자아내지만 두번째 대답은 여기에 동음이의어 dough의 두가지 의미(밀가루반죽, 돈)가 보충되어 《밀가루를 반죽할(돈이 필요할) 때》로 전의됨으로써 유모아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는 또한 멍에법이 있다.

멍에법은 말그대로 문장에서 하나의 동사에 의미가 다른 두개이상의 대상을 메우는 수법이다.

멍에법은 첫째로, 하나의 동사가 격이 다른 대상들을 지배함으로써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를 동시에 가지는것으로 실현된다.

례: During scutwork, he takes everything – but the responsibility. He is not yet obliged to be infallible. (의학실습기간 별의별 잡일을 다 해도 책임만은 지지 않는다. 아직은 오류를 범해도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멍에법은 둘째로, 동사는 한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이 지배하는 대상들이 의미적으로 불일치관계에 놓인것으로 하여 실현된다. 첫째 경우에서도 물론 이러한 불일치가 있으나 동사의 두가지 의미의 실현이 더 두드러진다.

례: Chol Su left his tutor's office with heartened confidence and a new reference book.

(철수는 새 참고서까지 받아안고 더욱 신심에 차서 선생님방을 나섰다.)

멍에법은 겹침법처럼 일반적으로 글의 긴장을 푸는 익살적인 비유이다.

영어유모아의 어휘론적표현방식에는 또한 련상어법이 있다.

련상어법이란 단어나 어구로 력사적인것, 문학적인것, 신학적인것 또는 말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 일상생활적인것을 련상적으로 나타내어 유모아적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이다.

문화적배경이 담긴 표현들은 잘 알려진 사람, 지명 또는 력사적사실 등으로서 말과 글에 리용되어 함축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직접적으로보다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기본이다. 그것은 필자가 이 표현의 출처, 의미들을 독자가 알고있다는 전체에 기초하기때문이다.

례: Milton! Thou shouldst be living at this hour,

England hath need of thee.

(밀톤, 그대는 이 시각 눈을 뜨게나,

잉글랜드가 그대를 부르네.)

우의 실례는 한 기자가 신문에 영어가 어지러워지는것을 한탄하여 낸 글로서 영어가 무질서하게 쓰이는 현 실태를 조소하고있다.

다음으로 영어유모아의 문장론적표현방식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전치사구를 모호하게 리용한 영어유모아가 있다.

영어전치사구를 모호하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유모아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예: A Scotsman takes all his money out of the bank once a year for a holiday; once it's had a holiday he puts it back again.

(직역: 스코틀랜드사람은 한해에 한번씩 휴가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고는 휴가를 마치면 다시 은행에 저금한다.)

위의 실례에서 전치사구 for a holiday는 the Scotsman과 his money를 다같이 수식할수 있다. 접수자는 상식적으로 돈액수보다 스코틀랜드사람이 휴가가는것으로 추측하게 된다. 그러나 문장의 뒤부분에서 주어가 it로 되어 기대가 허물어지게 되는것이다.

또한 보어를 모호하게 리용한 영어유모아가 있다.

예: The treacle puddings have caused several people to be taken to hospital with badly scalded feet. It seems that the instructions read: "Open tin and stand in boiling water for twenty minutes."

(당밀푸딩을 먹고 여러 사람들은 끓는 물에 발의 살갗이 심하게 벗겨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설명서에는 《통을 열고 끓는 물에 20분간 담그시오.》라고 써여진것 같다.)

《Open tin and stand (tin) in boiling water for twenty minutes. [통을 열고 (그것을) 끓는 물에 20분간 담그시오.]]에서 모호성은 동사 《stand》뒤에 보어가 없어 산생되었는데 명령문에 주어가 없어 모호성이 더 커졌다.

이 실례에서 모호성을 없애면 내용은 명백히 안겨오지만 반면에 통답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영어모국어사용자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영어유모아의 언어학적특성을 비롯한 언어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영어교육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어유모아, 언어학적특성